



#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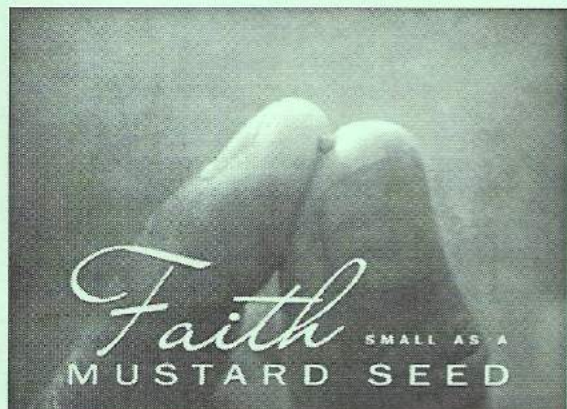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7주일

제36권 44호(다해) 2016년 10월2일

## [묵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신앙 ----- ?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야,

하느님을 믿겠다는 생각 -----?

믿음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 속에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러나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점을 잊어버리고 있어 안타깝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 미사

|     |                             |                                |
|-----|-----------------------------|--------------------------------|
| 월요일 | 새벽 미사                       | 오전 6:30                        |
| 화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신심 미사(첫 토요일)<br>저녁 미사(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행사표

|     |                                                                                                                                                   |                                                                         |
|-----|---------------------------------------------------------------------------------------------------------------------------------------------------|-------------------------------------------------------------------------|
| 수요일 | 레지오 마리아                                                                                                                                           | 오후 8:00                                                                 |
| 목요일 | 성 시간 (첫 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                                                                                                       | 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성경공부(성경통독)                                                                                                                                        | 오전 9:30                                                                 |
| 토요일 |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br>제대회 모임(첫토요일)<br>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br>울뜨레아(넷째 토요일)<br>배론청년회 모임                                                                    | 오후 4:00<br>오전 10:00<br>오후 6:00<br>오후 8:00<br>저녁 미사 후                    |
| 주일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페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제주 - ●모임의 날<br>(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br>●꾸리아 오후 1:30<br>3제주 - ●요셉회<br>4제주 - ●사목회<br>●빈첸시오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2:30 |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       |                              |
|-------|------------------------------|
| 주일    | 8시(오전)~4시(오후)                |
| 월     | CLOSED                       |
| 화     |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수     | CLOSED 2:00~7:00(오후)         |
| 목,금,토 |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요<br>저녁<br>미사 |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신임순 안나,<br>유일성, 박중환, 유승례, 백남기 임마누엘<br>(생)박지영 레지나, 황혜민                                                                                                                                                                                                     |
| 주일<br>학생       | (연)백남기 임마누엘<br>(생)김세민 리디아, 권하은 티파니, 박영식 안드레                                                                                                                                                                                                                                    |
| 주일<br>낮<br>미사  | 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오웅학,<br>박희성 데레사 & 김계성 아가다, 반치우 안셀모,<br>박요셉 & 이마리아 & 박준호 & 박영성 & 염옥화, 최근석 마리아,<br>박중환, 임규에 분다, 안인현 켈마, 고준희 제임스, 백남기 임마누엘<br>(생)손석 스테파노, 박정미 클라라, 글로리아 성가대원들,<br>황운재 베드로가정, 김행선 올리아나,<br>민석준 토마스 & 미애 & 민영준마르코 & 앤지 & 미아 & 리나,<br>이원형 프란치스코, 남명자 데레사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하바쿱 (Habakkuk) 1,2-3; 2,2-4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  
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티모테오2서(2 Timothy) 1,6-8.13-14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복음 루카 (Luke) 17,5-10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

## 한국 교회의 역사

##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 5. 교회와 민족주의 운동(1876~1945년)

## 5-2. 비폭력적 민족주의 운동

이 신문은 '독립 협회'와 같은 애국 단체에 참여하던 신자들과 교회 당국이 운영하였다. 그 후 이 신문은 당시 신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적극 환영을 받았고, 조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성장하였다. 개화기 당시 교회가 추구하던 공식 입장은 애국 계몽 운동 차원의 온건한 민족주의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이를 통해 전근대적 문화를 타파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침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애국 계몽 운동 차원의 활동까지 탄압한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많은 학교가 폐쇄되었고, 「경향신문」도 일제의 탄압으로 1910년 폐간되었다.

## 5-3. 국권 회복 운동

비폭력적 애국 운동 가운데 하나로 국권 수호를 위한 기도회를 들 수 있다. 1904년 서울의 천주교 신자들은 황무지 개간을 빌미로 하여 한국의 국토를 약탈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반대하여 서울 명동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자 신자들은 이러한 애국 계몽 운동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 나가며, 국권을 수호하거나 회복하려는 반침략 운동에 가담한다. 천주교회가 반침략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때는 1904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의 국토를 침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무지 개간이란 명목 아래 새로운 침략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서울 명동 성당에 모여 '황무지 개간령'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일제에 대항하는 교회의 반침략 운동은 이 기도회를 계기로 하여 촉진된다. 조국의 주권 수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시 한국 천주교 신자의 일반적 정서였다.

한편 기도회와 같은 비폭력적 저항과 같은 노선에서 우리는 1907년도 신자들이 전개한 국채 보상 운동을 주목할 수 있다. 당시 구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국채 1,30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 차관이 일본의 침략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국채를 국민의 힘으로 보상하여 침략을 막아 보려는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 운동을 발기한 사람은 대구 지역 신자인 서상돈(徐相燾, 1849~1913년)이었다.

&lt;계속&gt;

|    | 토요 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시작 | 321   | 321   | 321  |
| 봉헌 | 269   | 269   | 269  |
| 성체 | 281   | 281   | 281  |
| 파견 | 194   | 194   | 194  |



## "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

살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은 긴 한숨과 탄식이요, 밀려오는 것은 오직 고통과 절망인 때가 있습니다. 하바쿱 예언자처럼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하바 1,2)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에 놓이면 하느님께 불멘소리나 원망의 속내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내려놓아서 안 됩니다.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이라는, 흐릿한 안개가 맑고 뚜렷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실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성실한 주님의 종을 묵주 기도 성월에 더욱 기억할 것입니다. “한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성모님의 삶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 줍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 분이십니다. 나자렛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기르시고, 때가 차자 시작된 아드님의 복음 선포 여정에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부활을 증언 하였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친구자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일생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루카 1,38)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성실하게 임해야겠습니다. 각자의 사명과 역할에 맞게 ‘답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2티모 1,8)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모님께 우리가 성숙하고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구도 청해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사명과 역할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히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

### 이번주 전례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유보나<br>보나      | 신덕레<br>테레사 | 송인선<br>안젤라    |
| 제1독서자 | 정진욱<br>노엘      | 박혜경<br>레나타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2독서자 | 이만석<br>미카엘     | 한경숙<br>안나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하버/카슨<br>1,2반 |

### 다음주 전례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조병준<br>플로렌시오   | 신덕레<br>테레사 | 남성철<br>베네딕도  |
| 제1독서자 | 시무궁<br>루이스     | 김교복<br>레오  | 이영석<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자 | 이만석<br>미카엘     | 김금자<br>테레사 | 전하현<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PV<br>1,4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오늘 주일(2일)은 LA 교구 선교/자선기금 (Together in Mission)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 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낮미사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 모집부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남성분들 파트 대환영합니다)
- 문의: 조정석 수산나(310)968-8171

#### ◆복사단 착복식

오늘주일(2일) 11시 미사 중에 복사단 입단및 착복식이 있습니다

#### ◆ 예비자 교리반 Mission Trip

- 일시: 10월 8일 토요일
- 장소: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 26801 Ortega Hwy San Juan Capistrano, CA 92675
- 문의: 이영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 2017년 정유년(가해)달력 광고 후원 받습니다

- 신청마감 : 10월 2일(주일)
- 새해달력의 특징 : 전,후 달을 포함하여 3달을 한 면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례력, 독서, 복음, 성인축일, 대축일, 미국 국경일과 미국교구 대 축일, 한국명절, 국경일도 명시되어있습니다.
- 내용 : 자연 속의 성전
-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 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 ~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2일: \* 소공동체 (토복봉사):김밥(\$4), 사발면(\$2)  
\* 주일학교 : 카레라이스 ( 11학년)
- 10월9일: \* 토남1,2반 :소고기무국(\$3)  
\* 주일학교 : ( 10학년)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교무금              | 강미순 구자운 김광자 김교복 김대우 김병태<br>김영덕 김옥찬 김 은 김인성 김주량 류현옥<br>박경주 박상준 박영식 박혜정 안민수 오세원<br>유경자 유보나 유희연 육근주 윤석구 윤화경<br>이미예 이태옥 이효세 이현주 임연조 임한나<br>장영진 정명모 조화숙 최태훈 홍인표<br>박이레네 | 성전헌금             | 강미순 구자운 김교복 김대우 김영덕 김주량<br>박상준 안민수 오세원 유경자 유희연 윤화경<br>이미예 이효세 이현주 임한나 장영진 조화숙<br>최태훈 |
| 주일미사헌금 : \$2,411 | 주일학교 : \$3,020                                                                                                                                                     | 감사헌금: \$100(박수지) | 합계 : \$1,520                                                                         |



남가주 소식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관 2016 성장 세미나

- 일시 : 10월 28일(금) 오후 4시-30일(주일)오후 5시2박3일
- 장소: 아씨시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  
1519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818)365-1071
-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팔로티회)
- 참가비 : \$100
- 참가자격 : 전신자
- 준비물 : 성경,묵주,필기도구, 세면도구,미사봉헌금
- 문의 : 각분당 기도회장 및  
봉사회 교육부장(714)345-4791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K.C.R.M.) (714) 343-4771

◆플타임 사무직 직원 구합니다.-South Bay

Torrance 에 위치한 Paramount Tariff Services, Inc. 입니다.  
함께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Operations Assistant(Entry-level) with management opportunity!

자격 요건 :

- 한국어와 영어필수
- 시민/영주권자
- 근무시간 : 월~금요일 8시~5시 플타임
- 연락처 :support@paramounttariff.com

◆제 35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6년 10월9일(주일) 낮 1시~5시  
10일(월)저녁 6시~10시 중 택일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KCBC 미주 카톨릭방송 설립 20주년 찬양의 밤

-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저녁7시
- 장소: 성 토마스 성당 (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 문의전화: 213 256 5708 / 카카오톡 아이디: kcbcus
- \*\*\* KCBC 미주 가톨릭에 새로운 엔지니어로 봉사해주실 분과 사무일을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 문의 :PD신은경 베로니카 (231)256-5708

| 소공동체 부 장                                 | 김 준 방지거 625-3312 |                        |                                |
|------------------------------------------|------------------|------------------------|--------------------------------|
| 구역/장                                     | 반                | 반 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br>539-3377         | 1                | 오신재 메히틸다<br>713-4926   | 신현화 헬레나<br>10/5 (수)12시         |
|                                          | 2                | 장수영 패트릭<br>781-0787    | 장수영패트릭<br>10/15(토)오후6시30분성당강당  |
|                                          | 3                | 윤미애 안나<br>560-7120     | 윤미애 안나<br>10/21(금)오후7시30분      |
| 토런스 서<br>임혜은<br>도로테아<br>200-0512         | 1                | 박동수 베드로<br>218-7340    | 김충섭 마틴<br>10/8(토) 오후5시         |
|                                          | 2                | 최양숙 안젤라<br>800-7393    | 홍광선 요셉<br>10/8(토) 오후5시30분      |
|                                          | 3                | 박명순 안나<br>968-7600     | 방미숙 마리아<br>10/18(화)오전10시30분    |
| 토런스 남<br>김희연<br>루시아<br>(213)<br>458-3356 | 1                | 김준 방지거<br>625-3312     | 남구역 모임<br>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남구역 모임<br>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
|                                          | 3                | 이희경 크리스티나<br>818-6903  | 남구역 모임<br>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
| 토런스 북<br>정병옥율리아<br>404-1607              | 1                | 황지영 안젤라<br>938-8089    | 권 세실리아<br>10/17(월)오후7시         |
|                                          | 2                | 1반과 같음                 |                                |
| 하버 카슨<br>주대중 다니엘<br>(818)640-9171        | 1/<br>2          | 박진수 스테파노<br>749-3151   | 김숙자 수산나<br>10/15(토) 오후6시30분    |
| P. V.<br>송인선<br>안젤라<br>(503)<br>927-0770 | 1                | 남해나 베네딕타<br>384-3289   | 남성철 베네딕도<br>10/7(금)오후7시 성당     |
|                                          | 2                | 유지아 클라라<br>793-6157    | 윤성진 안드레아<br>10/15(토) 오후6시      |
|                                          | 3                | 신혜정 로사<br>213-369-0687 | 장원철 안드레아<br>10/7(금) 오후7시       |
|                                          | 4                | 이귀란 아녜스<br>617-3568    | 이귀란 아녜스<br>10/11(화)오전10시30분 성당 |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반장모임 | 1시 |
|----------|----|

다음 주일 단체모임

|         |    |
|---------|----|
| 제 단체 모임 | 1시 |
|---------|----|



## 길에서 만난 사람들

금목서 향기가 그윽한 가을이다. 아파트 화단에 우뚝 선 금목서가 작은 꽃들을 조롱조롱 매달고 달콤한 향기를 흩뿌리면 나는 콧구멍을 최대한 크게 벌려거리며 향기를 즐긴다.

올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그 길에서 가을날의 금목서 같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사람들을 만났다. 인생 여정의 늦가을에 접어든 칠순 즈음의 할머니들이시다. 걸을 수 있을까, 일정에 차질을 주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만 그것은 사람을 길만 보고 판단하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된 나의 기우였다.

발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터져서 질퍽거리도 묵묵히 선두 그룹을 지킨 그분들의 의지가 예상외로 많았다. 무릎이 아파서 한 시간도 잘 걷지 못했다는 그분에게 순례길을 허락하신 자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 그분들에게 녹아있었다. 각자의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뜨거운 믿음이 칠순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것 같았다.

봉사활동으로 일관된 그분들의 삶을 풀어놓았다. 무뚝뚝한 말투와 거무스레한 얼굴만 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깊이의 신앙증거였다. 가족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성소자들을 오랫동안 친자식 이상으로 뒷바라지해오셨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운 단체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할 때면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지인의 도움으로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 채워주시더라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믿는 대로 실천하는 그분들의 굳건한 믿음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느껴졌다. 청년의 힘을 능가하는 저력을 누가 왜 주시는지 뻔히 보였고 아름다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봉사활동은 두고라도 기도의 대상과 범위도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어설픈 믿음 안에서 서성이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야고보 성인이 걸으셨던 그 길에서 동행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하신 것 같았다. 돌아가면 이제는 뭔가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리라 다짐했지만 그것마저 실천이 안 되고 있다.

10월은 목주기도의 성월이다. 꽃의 향기가 열매를 위한 것이듯 기도의 열매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기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타인을 위해 한 단의 목주라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해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라도 남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는 가을날이면 좋겠다.

◆ 최순덕 세실리아 / 수필가

## [길을 찾는 그대에게]

지는 게 싫었고 능력 있는 친구를 보면 미웠고 이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능전공이라서 의사 친구들보다 못한 처지로 살게 하다니, 하느님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느님께서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 확 때리고 싶습니다.

☞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사제로 살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한 항의는 처음입니다. 맞음말이 어찌나 강렬한지, 주님이 화들짝 놀라서 얼른 당신의 두 볼을 감싸 쥐셨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 표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한지, 또 얼마나 분노가 끓고 있는지 가능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청년들의 시리고 저린 응성거림으로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습니다. 모든 불공평을 하느님 탓으로 돌리기에 인간의 허물이 너무도 뚜렷하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만족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을 조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매님의 분노가 하느님을 겨냥하는 일에 맞장구를 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늘 비교하며 샘내고 질투하느라 지친 자매님께 참 평화를 선물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전해 드릴 뿐입니다. 그 동안 자매님의 응석 어린 기도를 참 많이도 들어주신 주님 사랑을 먼저 느끼기 바랍니다. 머잖은 날, 주님과 함께 하는 행복에 겨워서, 주님을 '교육'안아드리고 싶다는 고백이 들려오기를... 고대합니다.

◆ 장재봉 신부/ 선교사목국장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 모령성체는 무엇인가요?

☞ 신자가 영성체 해서는 안 될 경우임에도 성체를 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모령성체(冒領聖體)라고 합니다. 모령성체는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자가 스스로 중죄 중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영성체를 하는 경우입니다. 모령성체는 성체에 대한 불공경의 태도이며,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자는 영성체하기 전에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해야 합니다.

◆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라자로

어느 날 예수님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벳타니아 마을로 가셨습니다. 두 자매의 오빠인 라자로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라자로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이랴 말씀하셨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1,1-4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신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 무엇이랴 말했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1,17-37

예수님께서 슬프고 마음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돌이었는데 그 입구에는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소리로 무엇이랴 외쳤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1,38-44

인간 역사 안에서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써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 )이요 ( )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 ),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 )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1,25-26)

### 아프다

모르고 바닥에 있는 커피 잔을 발로 찼습니다.  
커피 잔은 깨지고 발가락엔 피가 났습니다.  
받는 것만 상처인줄 알았습니다.  
받는 상처만 아픈 줄 알았습니다.  
주는 것도 상처라는걸,  
준 것만큼 같이 아프다는 걸  
생긴 상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커피 잔 파편 쓸어 내다가  
손가락까지 찔렸습니다.

-이영 아네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 ) 하느님의 ( )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요한 11,40)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 성인말씀

깨끗한 사랑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행동이  
다른 큰 사업을 모두 한데 모은 것보다도 교회에  
더 유익하다.

- 성녀 소화 데레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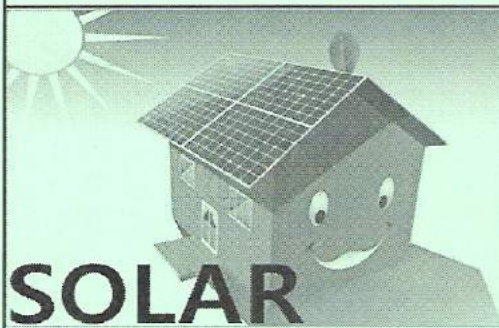


##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 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 용자 / 재용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장 의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지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벨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